

# 장백산천지

제 277 호

2016 년 5 월 9 일

월요일



## 파룬따파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法輪大法)라 하며, 1992년 5월 13일에 리훙쯔 선생이 창춘에서 전해 온 불가상승(佛家上乘) 수련 공법이며, 우주의 특성 ‘진, 선, 인 (真, 善, 忍)’을 수련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5 조의 느슨하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 **사람더러 선을 향하도록 가르친다.** 파룬궁은 하나의 매우 효과적 인 신체건강 공법이며 하나의 숭고한 신앙이다. ‘진, 선, 인 (真, 善, 忍)’에 대한 신앙은 사람을 성실, 선량하고 너그럽게 변화시킨다. 파룬궁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공을 가르치며, 배우는 자는 자유로이 오가며 명부가 없다.

●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파룬궁은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기이한 효과가 있다. 1998년 국가체육 총국은 베이징, 우한, 다롄 및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를 조직하여 약 3만 5천 명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5 번의 의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파룬궁 수련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효과가 98%로 나타났다.

● **사회에 유익하다.** 파룬궁은 수련자가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힘써 도덕 수준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1998년 하반기, 인민대표대회 정년퇴직 노간부들이 몇 달간 파룬궁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서 “파룬궁은 나라와 인민에게 백 가지 이로운 점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연말에 정치국에 조사보고를 제출했다.

●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의 서적은 30여 종의 언어로 출판 발행되었고 아울러 파룬따파 인터넷 (falundafa.org)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리훙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받은 여러 나라 정부의 여러 가지 표창, 지지 의안과 편지는 3000여 개를 초월했다. ‘진, 선, 인 (真, 善, 忍)’의 신앙은 세계 각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대륙 한 곳에서만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 ◇

## 홍콩 파룬궁수련생들 ‘4.25’ 평화청원 17주년을 기념, 각계에서 성원

[밍후이왕] 2016년 4월 24일, 홍콩 파룬궁수련생들은 집회와 대행진으로 ‘4.25’ 평화청원 17주년을 기념했다. 여러 의원과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거나 혹은 녹음 발언으로 파룬궁에 대한 경의와 지지를 보냈으며, 중공이 파룬궁 박해에서 지은 범행을 비난하고, 박해 원흉 장쩌민을 하루속히 사법처리 할 것을 호소했다

**진상을 알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다**

홍콩 파룬따파 불학회 대변인 쥔홍장(簡鴻章)은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7년 전 만여 명 파룬궁수련생이 자발적으로



▲ 4월 24일 홍콩 파룬궁수련생은 베이자오잉황도(北角英皇道) 유락 공원에서 ‘4.25’ 평화 대청원 17주년 기념집회를 거행했다.

로 베이징 국무원 내신내방 판공실(중난하이 부근에 있음)에 가서 평화적인 청원을 하면서 표현된 이성적이고 평화적이며, 바른 믿음을 곳곳이 지키는 모습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가장 원만한 청원’이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쩌민은 오히려 자기 사심에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서 부터 출발해 1999년 7월 20일에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발동했다. 17년 이래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상을 널리 알려 국내외에서 한 갈래 반 박해의 정의의 큰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 해의 평화 청원을 ‘중난하이를 포위’했다고 모함하고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떠들어대던 장쩌민과 그 졸개들은 지금은 흥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젠훙장은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100명이 넘는 중공고위관료들이 잇따라 낙마했고, 박해원흉 장쩌민과 쩡칭훙을 처벌할 날이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계 인사들이 빨리 파룬궁진상을 파악하고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할 것을 호소했다.

전 세계 탈당서비스 센터 책임자 이룽(易蓉)은 미국에서 인터넷 발언을 통해 2억 3천 4백만이 넘는 중국 민중이 중국공산당의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해 자유와 광명을 선택한 것을 축하했다. 이룽은 호소했다. “나는 중공의 당·정·군 관료들이 정세를 잘 살피고 즉시 파룬궁에 대한 범죄를 멈추며, 중국인민에 대한 범죄를 멈추고, 동시에 공을 세워 속죄를 받을 것을 호소합니다.”

홍콩 전 입법국 의원이며 ‘민주구원홍콩역량(民主救港力量)’ 소집인 쩡젠청과 홍콩 전 입법국 의원 펑즈훙 목사가 비를 무릅쓰고 현장에 와서 지지 발언을 했다.

홍콩시민애국민주운동 지원연합회 주석, 민주당 입법회 의원 허전런, 홍콩민주당 입법회 의원 후즈웨이 등 여러 민주계 의원들도 녹음을 통해 발언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줄곧 ‘진, 선, 인(真, 善, 忍)’정신을 주도로 평화적 반박해를 견지하고 있음에 탄복했다.

린자오(林昭) 기념상 수상자인 지린 작가 루쉐송(盧雪松)은 밝혔다. “4.25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중

국에서 이처럼 대범한 시민행동이 일어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파룬궁수련생이 고상한 도덕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면서 묵숨으로 진, 선, 인을 실천한 정신은 마치 대세를 거스르는 한 줄기의 맑은 물처럼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사람들을 움직여 선의를 갖게 하였으며, 광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 ‘4.25’ 평화청원 회고

1999년 4월 25일, 파룬궁수련생들은 평화청원을 했다. 원인은 중공 장쩌민 집단이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 파룬궁을 박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파룬궁 서적 출판을 금지했고, 장쩌민 뤼간 패거리는 국무원 총리 주룽지의 파룬궁에 대한 긍정적인 지시를 무효화했다. 공안부는 1998년부터 도처에 특무를 파견해 ‘죄증’을 수집하려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공안을 동원해 연공하는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하는 등……3년 동안 끊임없이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에는 경찰이 파룬궁 수련생을 구타하고 45명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체포한 ‘텐진사건’을 일으켜 파룬궁수련생 1만 명이 1999년 4월 25일 평화청원에 나서게 되었다.

‘4.25’청원 현장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이었으며, 질서정연했고, 표어와 구호도 없었으며 경찰은 한가히 한담을 하고, 어떤 압력도 없었다. 당시 총리 주룽지(朱鎔基)가 초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파룬궁수련생은 그날 저녁으로 떠났고, 땅에는 종이 한 조각도 없었다.

‘4.25’청원은 파룬궁수련생들의 평화롭고 이성적인 경지와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도덕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일체는 오히려 장쩌민에게 강렬한 질투를 느끼게 했다. 그는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1999년 7월 20일 독단적으로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을 개시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 회사 직원들, ‘3 퇴’ 후 복을 받다

[밍후이왕] 나는 몇 명의 동료와 함께 이미 폐업을 선포한 계열사의 뒤처리를 하려고 갔다. 다음 업무의 배치와 아직 갈 곳을 모르는 지사의 경리는 정서가 아주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여가를 이용해 그에게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하도록 가르치며, 중공 장쩌민 패거리가 파룬궁을 비방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는) 파룬궁진상을 알려주고 ‘3 퇴’(당, 단, 대 탈퇴)에 대해 말했다. 생각지도 않았으나 그가 급하게 몸을 일으켜 나의 손을 잡으면서 격동되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나에게 세 번이나 말해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나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 회사의 정직원이 됐다.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평생에 이렇게 큰 관직을 얻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20만이 넘으며 업무가 전 성(全省)에 걸쳐 있다. 성 1급에 속하는 우리 본사에서 부장급 간부가 되면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과장, 부 과장, 혹은 말단에서 중간 간부로 있던 네 사람이 파룬궁진상을 알고 탈당한 후 잇따라 모두 재무처의 부처장이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준 파룬궁진상자료를 본 후 ‘3 퇴’했고, 한 사람은 사무실 복도에서 ‘3 퇴’를 권했던 사람이며, 또 한 사람은 내가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3 퇴’를 권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진상을 알리기 전에 이미 ‘3 퇴’를 했던 사람이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살면서 이렇게 큰 벼슬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 글/ 중국 대법제자



#### 연변박해소식

◎지린성 연변 허룽 파룬궁수련생 김영실은 연지 구치소에서 박해 당하다

68세인 김영실(金英实)은 작년 10월, 허룽에서 파룬궁수련생의 장쩌민고소를 돕다가 납치됐다. 그 후 줄곧 그녀의 소식을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야 연지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줄곧 수갑을 차고 가족 면회도 박탈당했으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다.